

“광주 군공항 이전 시·도 단체장들 주민 설득 나서야”

‘광주 군공항 이전’ 국회 토론회
“시·도 상생사업 인식 필요
국책사업 국방부서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시, 전남도와 시·군이 이전 대상지 선정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정치권으로부터 나왔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적정 통보 이후 2년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방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정책 토론회’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된 단체장들의 전형적인 자세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또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주민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사업을 장기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민중평화당 전정배 의원(광주 서구)은 이번 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자신이 직접 한) 말씀에 책임을 지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더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21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광주 군공항을 옮길 곳은 전남 밖에 없다. 군공항 이전도 전남도가 기초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김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협약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 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함께 모여 있었다”고 소개한 뒤 “김 지사와 전남을 이끌고 있는 여러 지도자들은 말씀에 책임을 지고, 군공항 이전에 더 많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올 상반기 내로 적어도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결정을 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류일영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결과 ‘적정’ 통보를 받은 지 2년 8개월이 경과됐는데도 광주 군공항 이전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군사적 전적지역을 검토했는데도, 지자체장과 협의 과정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자문위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는 사업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는 소통과 토론의 장이 열리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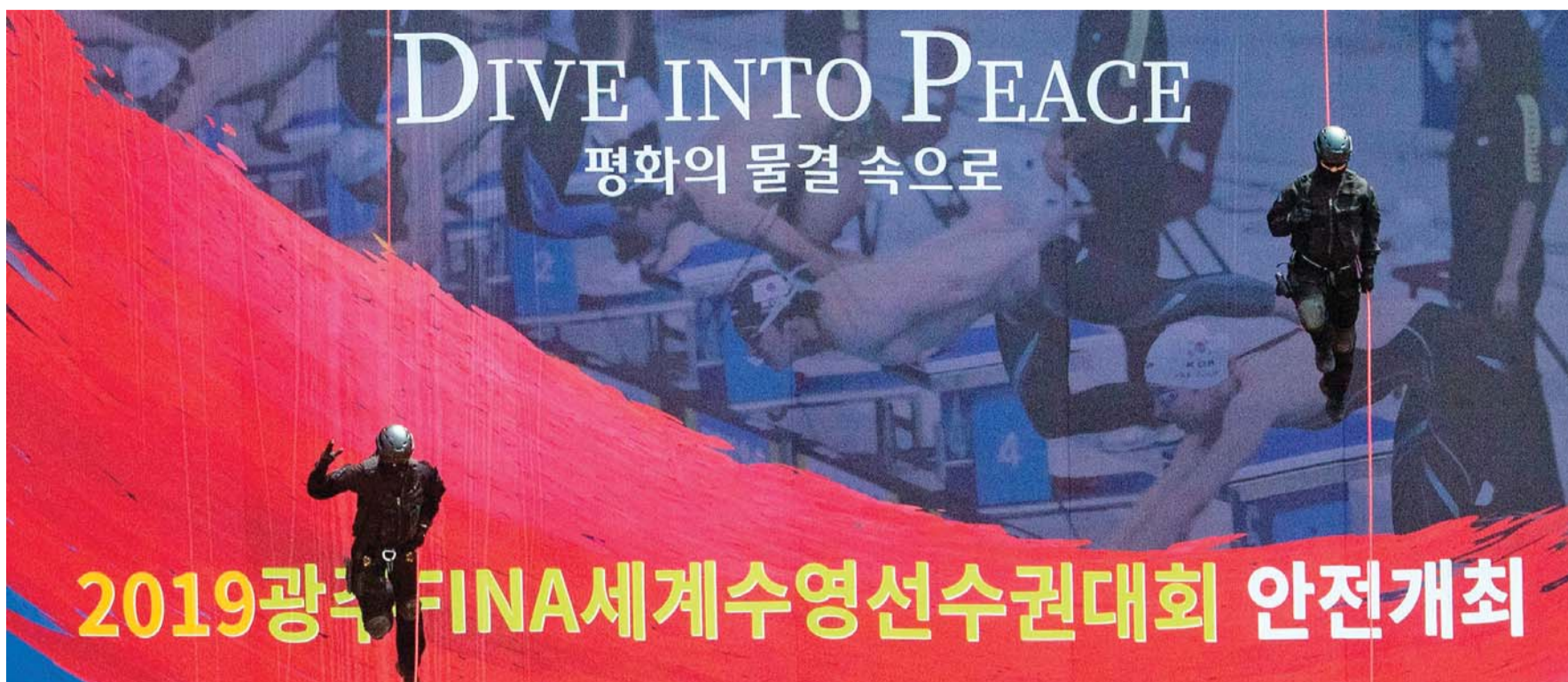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 이어 “(군공항 이전 후보지) 관계 지자체와 협조해 우호적인 협의 여건을 조성하고 (법률에서 정한대로) 후보 지역 단체장과 공식적인 협의 후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며 원론적인 발언을 내놓는 데 그쳤다. 한 단장은 또 “이전 후보 지역인 무안, 해남 등지에서는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오해 확산을 방지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필요한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단일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성격이 ‘국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수행 기관인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 책임을 지역민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남도와 시·군 단체장들에게 해당 사업이 시·도 상생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 군공항 이전 사업을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와 천정배·김동철·권은희·송갑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국방부는 최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무안·영암·해남·신안 등 4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수영대회 D-37 ... “테러범 꿈짜마!” 4일 광주시 서구 영주중합체육관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테러종합훈련에서 경찰특공대가 건물 안에서 관람객들을 억류한 테러범들을 제압하기 위해 레펠로 하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안전 개최 ‘대테러 종합훈련’

707부대 등 800여명 참여
이종리 “성공개최 만반의 준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대테러 종합훈련이 4일 영주체육관에서 열렸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광주전남대테러대협회의뢰·광주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경

원과 광주지방경찰청·광주소방안전본부·군 707특임부대·31사단·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 서구청·광주시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대테러 첩보 입수, 테러경보 상황 조정, 폭발물 탐제 드론 공격, 선수단 탐승 차량 탈취, 테러범의 관람객 인질 억류, 사린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 수습 및 복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 기관은 상황 조치 훈련을 병행하며 상황별로 각 기

관별 구체적인 역할을 점검했다.

훈련을 주관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테러 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한외국관광대표단 20여명도 수영대회가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번 훈련에 관·군·경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공사·공단, 운송사업조합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이 참여해 훈련 효과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광주수영대회 대테러·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수영대회가 테러분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외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살려 이번 대회도 안전하게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수산단 대기오염 거짓신고 기업들 “환경개선 3250억 투자”

5개 기업 자구책 발표
시민 검증·공개 방안 마련해야

대기오염물질 자체 측정 과정에서 측정치를 거짓으로 신고한 여수산업단지 내 5개 기업들이 오는 2023년까지 환경 개선에 32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놨다.

전남도는 4일 “여수산단 환경관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지난 3일 여수시의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거짓기록 위반업체인 LG화학,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등 5개사가 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개선대책 주요 내용은 ▲대기 TMS(Tele Monitoring System) 부착 확대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반 구축 및 사업장별 악취 측정기 설치 ▲미세먼지 저감, 환경시설 최적화 등 환경 분야 설비 확충 등이다.

LG화학의 경우 여수공장 임원 명의의 사과문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해당 공정을 완전히 폐쇄하고 이달 말까지 임직원

(44명)과 협력업체 직원(16명)에 대한 전환 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2020년까지 대기·수질 환경 개선 비용으로 1549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GS칼텍스도 1500억원을 투자, 1만 100 t (2018년) 수준인 기존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오는 2023년까지 5800 t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금호석유화학은 2020년 6월까지 198억원, 롯데케미칼은 2-3년 안에 300억원, 한화케미칼은 130억원 수준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 같은 시설 개선 이외에도 서면 사과, 합동조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지역주민

과의 상생협력 등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또 환경부가 마련 중인 대기 자가측정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주민 대표들은 기업체가 발표한 투자계획에 대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검증·공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고 기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www.kbihanam.com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함께합니다!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Knowledge Based Industry Center

지식동 (오피스)
기숙사동
근린상가
제조동

무등산 조망권의 친환경 오피스 / 풀옵션 기숙사 / 스마트 제조동 / 스트리트형 근린상가

합리적인 분양가와 파격적인 금융혜택 및 세제혜택!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중도금 무이자
다양한 장기/저리 융자

부가가치세
100% 환급

분양상담전화
062-710-7707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57 연면적 60,262.04㎡ 건축면적 7,716.96㎡ 용적률 349.75%
건폐율 56.95% 규모 지하 2F / 지상 15F 입주대상업종 제조업 / 첨단벤처기업 / IT산업 / 엔지니어링 / 정보통신 / 연구개발 / 지식산업 / 광고디자인산업 / 영상산업 등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광역시 나영산업개발(주) 아나대체투자자산운용 남화토건주식회사 CT&A 에트러(주) 사명사 운용사 시공사 사명대행사

광주의 엔진은 하남산단! 하남산단의 엔진은 KBI하남!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의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최적화된 비즈니스 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등 다양한 용도의 업무 편의시설	주차 스트레스 해소 총 600대의 100% 주차식 주차공간 확보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카페, 병원, 은행, 편의점, 코인세탁방 등	최고의 휴게 환경 탁 트인 무등산 전망, 발코니, 옥상정원 등 휴게 공간
풍부한 엘리베이터 총 11대의 엘리베이터 시설 대기시간 단축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조명, 일렉트릭 파워 네트워크, CCTV모니터링

현장 및 분양홍보관 위치

현장사무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57
분양홍보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3번로 58